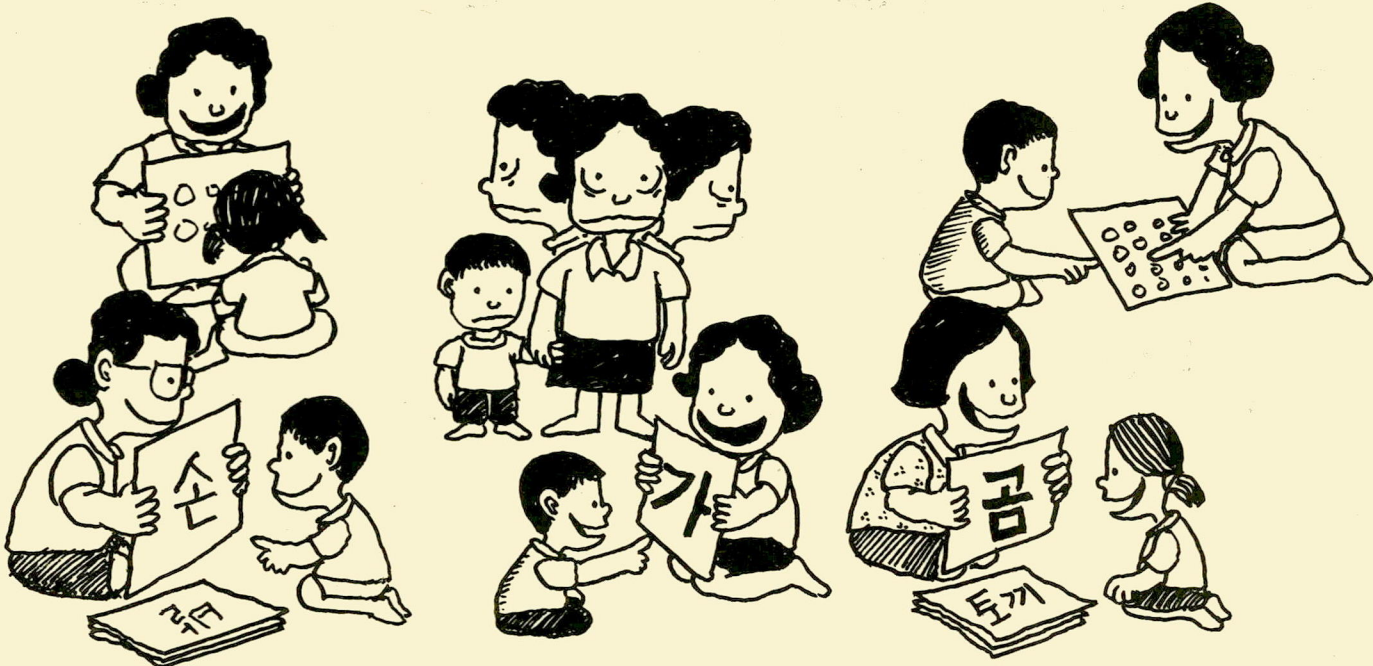


‘과외공부의 귀재’로 변신한 맹모의 후예들

요즘 엄마들을 바쁘게 하는 원인은 ‘한 아이를 열 아이 키우듯’ 하는 육아법에 있다. 자녀의 수는 한두명으로 줄어들었지만 그 아이들에게 투자되는 물량과 정성은 열 배 이상으로 늘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은 교육열이 높고 헌신적이기로 이름난 여성들이다.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을 실천한 본보기처럼 자식을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서슴지 않을 수 있는 강인한 자질을 유전자로 물려받은 것 같은 이들이 한국의 어머니들이다.



깨우침으로 인물을 키워내던 옛날 어머니들

그러나 한석봉 어머니의 딱 썰기 교육으로 상징되던 그 옛날 어머니들의 자식교육과 요즘 어머니들의 교육법을 비교해보면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한석봉 어머니의 일화에 서는 어머니의 인고 자체가 중요한 교과서로 제시되고 자녀 스스로의 ‘깨우침’을 출발로 하고 있으며 그 목적은 ‘큰 인물’이 되는 데에 있는 것이 보통이다. 감감한 방 안에서 딱 썰었던 한석봉의 어머니는 아직 영글지 않은 아들을 다시 어둠 밖으로 내 쫓으면서 차마 그의 아들이 단순히 이 나라에서 제일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되려거나, 그것을 수단으로 출세하기를 소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마도 그 어머니는 아들이 글씨를 배우는 어려운 수련과정을 잘 이겨내고 ‘도’를 깨우쳐 못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인물로 자라줄 것을 기원했을 것이다.

자녀교육의 교훈으로 우리의 머리 속에 입력돼 있는 또 하나의 고사가 ‘맹모삼천지교’다. 좋은 교육환경을 찾아서 세번을 이사했다는 이야기다. 맹자의 어머니가 사용하는 자녀교육법은 좀더 간접적이다. 이것은 이렇하고 저것은 저러하다고 직접적으로 지시하지 않은 채 아들의 시계(視界)를 바꿔주는 방법을 택한다. 간접적이지만 가장 스케일이 크고 가장 근본적인 교육이 되었을 것이다. 그 결과 인지 이 어머니 아래서는 대학자가 자라났다. 맹모의 교육법에서도 중요한 것은 자녀 스스로의 깨달음이고 어머니들은 한결같이 아들들에게 ‘도’를 갖춘 ‘인물’을 원한다.

그에 비한다면 요즘 어머니들의 자녀교육법은 한결 규격화되고 조급해졌다. 딱을 써는 솜씨로 아들을 가르쳤던

한석봉의 어머니는 대학졸업장이 손수건 만큼이나 흔해진 요즘 세상에서는 아이들에게 직접 글자를 가르치는 유능한 어머니로 변해 있다. 또 교육을 위해 이사를 세번씩이나 다녔던 맹자의 어머니는 요즘에 이르러서는 좋은 교사를 찾아 아이들을 차에 싣고 다니는 기동력을 갖춘 세련된 오너 어머니로 변신해 있다. 어머니의 인고를 교과서로 삼던 교육법도 좀 달라졌다. 어머니는 자녀가 말을 시작할 무렵부터는 아이의 24시간을 낭비없이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철저한 프로그래머로 변신한다. 가장 좋은 교사와 가장 좋은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종류별로 소그룹 과외를 조직하고 해체하고 또 다시 조직한다. 조간 신문 읽을 시간은 없고 선거에 관심 기울일 시간은 없어도 아이들 교육에 관한 한 이들은 정보통이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유비통신’을 따라가노라면 이 어머니들의 정보시장을 만나게 된다.

이들에게는 가난도 문제되지 않는다. 한달 수입의 삼분의 일이 교육비로 쓰인다. 그래도 이 집 어머니는 ‘더 이상 뺄 것이 없다’고 말한다. 아이 교육을 우선 순위에도 두기 때문이다. 이 집에서는 ‘돈이 너무 들 것 같아서’ 둘째 아이를 낳지 못하겠다고 말한다.

어머니의 외길 ‘성적으로 보상될 그날’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자들은 자식, 특히 아들의 성공을 통해서 교생스러운 인생을 보상받는 체제 속에서 살고 있다. 얼핏 보아 ‘여성 상위시대’를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대의 어머니들이지만 여자가 한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느끼기까지는 너무나 멀고 너무나 험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정은 여전하다. ‘여자가 〇〇가 될 수 있다’는

수많은 가능성을 보고 듣고 자랐지만 결혼 이후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어머니가 되는 외길인 것이 보통이다. 선택이 아닌 상황에 밀려 이 외길을 걸어가면서 바로 옆에 나 있는 ‘가지 않은 길’에 드리워진 가능성의 열매를 바라만 보아야 하는 현대의 어머니들은 과거와는 또다른 갈등거리를 매달고 사는 셈이다.

학창시절 푹푹하다 소리 들었던 기억도 있고 좋은 학벌도 있고 자신감도 있는 여성들의 외길행은 아이의 성장과 함께 점차 보폭을 빨리하게 된다. 결혼 초창기에 고민도 해보고 갈등도 해보지만 우리의 결혼문화 속에서는 여자가 자기식대로 삶을 살아갈 영역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상황에 던져진 아이가 유일한 숨구멍이다. “무엇하나 마음대로 하고 살지 못하다가 아이가 생기면 육아충분증을 보인다”는 한 주부의 고백은 이런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아이의 교육이 시작되는 것과 함께 젊은 엄마의 갈등과 방황은 서서히 막을 내리기 시작한다. 어머니의 외길에서 아이의 교육이란 평소에 자신을 억압하던 이들까지도 재량권을 인정해주는 여자의 영역이다.

‘아이를 위해’, ‘아이의 장래를 위해’, ‘교육을 위해’ 이런 류의 명분 앞에 한국사회는 무척 관대하다. 한국사회가 여자에게 합법적으로 재량권과 전문성을 부여하는 두 가지 영역이 있다. 그 한가지가 아이의 교육, 즉 모성의 영역이고 또 하나가 멋내고 치장하는 영역이다. 이 두 영역에서는 금기도 사라지고 간섭도 사라진다. 잘만 하면 영예를 잡아줄 수도 있다. 그러나 멋내기 영역은 여자가 결혼하고 나이가 들면 별로 효용성이 없어지는 부분이지만 아이의 교육은 여자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엄청난 보상책이 있는 영역인 것이다. 어

머니의 외길을 걷기 시작하면 어차피 거쳐야 할 길, 왜 그 경주를 시작하지 않을 것인가?

“남들이 다 하니 안할 수가 없다”

이 외길을 따라 보폭이 빨라지기 시작한 어머니들의 전속 질주가 계속되는 동안 엄마의 얼굴은 아이의 얼굴이 되고 여자의 이름은 남편의 이름 위에 오버랩 됐다가 없어지고 만다. ‘영재교육’을 내세운 조기교육 상품을 든 업자들과 과외업자들이 이 어머니들의 질주를 경호한다. 세계적인 음악가 정트리오를 길러냈다는 이원숙 여사의 교육법과 하바드 대학 수석 졸업생이라고 소개된 홍정옥 군의 어머니, 그리고 아이들을 서울대학교에 들여보냈다는 어머니들을 성공적인 모델로 그리며 ‘그 날’의 영광을 기다리며 가쁜 숨을 내쉬고 있는 주자들이 된 것이다. 이 엄마들의 행렬은 여자들이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교육의 노예가 되어야 했던 우리 시대의 여성사를 증명하는 그림으로 기록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외길 경주가 끝날 지점쯤에선 부정 입학 사건에 연루된 후에도 “너희도 기회 있으면 안했겠느냐?”고 되묻는 막강한 모성의 선구자들과 맞닥 드릴지도 지도 모르겠다.

이들 엄마들이 우리사회의 제도교육을 고쳐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바꿀 수만 있다면 하는 바람을 갖는 순진한 사회운동가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남들이 인정해주는 성공’을 원하는 이들이 자기 소신을 위해 궤도를 이탈할 수는 없는 일이다. 궤도 이탈에 성공했다고 해도 그것은 성공도 행복도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리하여 우리의 어머니들은 또다시 달리기 시작한다. 남들이 부러워 하

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남보다 잘하기 위해, 남들이 다하는 것을, 남보다 더 열심히 하기 위해... 경쟁주의 교육의 화신이 되어 사교육업자들과의 핫라인을 통해 교신을 하면서 ‘죽기 아니면 살기’의 교육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다.

유치원 다니는 아들에게 피아노와 미술과 영어와 수영, 영재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강남의 한 어머니가 말한다. “나도 전에는 조기교육에 비판적이었고 자기 발전을 위해서 살고 싶었다”고. 그러나 “막상 내 문제로 닥치니 안할 수가 없더라”는 것이다. “세상은 결국 성적으로 말한다”고 믿고 있는 이 어머니는 “엄마가 옆에서 해주는 아이들이 나중에 성적이 좋다”는 정보를 강력하게 믿고 있는 어머니다.

또 서울 근교인 일산에 있는 5세, 7세 남매의 어머니도 아이를 가르치기에 열심이다. 창의성과 순발력 개발을 위해서 성문교실의 영재교육과, 암기력을 위한 구문수학, 구문국어를 하고 있고 엄마가 하루에 한시간 씩은 “끼고 가르친다”는 어머니다. 역시 아이에게 매달리지 않고 자기

발전을 위해서 사는 삶을 바랬다는 이 어머니의 말이다.

“아이가 나중에 자기가 하고픈 일을 하면서 살 수 있게 뒷받침 해주려는 겁니다. 네? 그럴려면 공부를 잘해야 하는 것 아니냐구요? 그야 그렇지요. 남보다 잘하지는 못해도 뒤떨어지지는 말아야지요. 국민학교 들어가면 다들 아는 것을 전제로 진도를 나가니까 지금부터 해두지 않으면 안돼요.”

이 어머니는 아이들이 국민학교 고학년만 되면 시간이 날 거라며 그때는 자기 하고픈 일을 하고 싶다고 말한다. 그러나 경험자들의 사례를 볼 때 학년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대학입시가 다가올수록 엄마의 할 일은 많아지는 것이 보통이다. 이 어머니에게 하고픈 일 할 수 있는 여유가 찾아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조기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는 고학력 젊은 엄마들은 하나같이 힘들다고 말한다. “아이에 매어서 아무 것도 못하겠다”고 하소연하면서도 “남들이 다해서 안할 수 없다”고 말한다. 또 “아이의 재능을 살려주기 위해 투자한다”면서 “공부는 잘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엄마들은 엄청난 정보를 수집하고 선택하면서도 늘 불안하다. 이 선택이 과연 나중의 보상을 보장해줄 것인지, 어디 더 좋은 선택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세계적으로 교육열이 높다는 한국의 어머니들은 이제 자식이 서너살 날 때부터 과외공부를 시키고 학습지를 풀게 하는 ‘과외공부의 귀재’들로 변신해 가고 있다. 이제 과연 아이들을 위해 교육적인 행동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경쟁주의 교육의 망령에게 아이를 내맡기면서 ‘아이를 위한다’고 자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말이다. (김효선 기자)

광주은행, 베스트폰 서비스센터 개설 직원 모두 여성으로 구성돼

광주 지역에선 처음으로 광주은행이 고객 금융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 <베스트폰 서비스센터>를 열었다.

본점 5층 텔레마케팅실에 대리를 포함한 8명의 여직원들로만 구성된 센터의 업무는 고객들의 욕구에 부응한 신속, 친절의 상담창구 역할을 하게 되는데 직원 모두가 여성이라는 것이 특징. 이는 섬세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업무의 특성에 따른 것이라고



▲김혜경 대리

대리를 맡은 김혜경 씨는 31세의 미혼여성으로 자신의 부서가 활발한 마케팅의 장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피력.

전화 (062) 220-2020